

미가 개관

1. 개요

미가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부패, 불의, 거짓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평화의 도래를 주제로 합니다. 그는 특히 지도자층의 부패, 부자들의 탐욕, 선지자들의 위선,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와 공의 없는 예배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남은 자의 구원, 평화의 왕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을 노래합니다.

2. 저작 연대

- 미가는 주전 740-700 년경,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미 1:1).
-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전과 직후의 정치·종교적 격동기에 활동하였습니다.

- 이 시기는 이사야,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입니다.

3. 저자

- 미가(Micah)는 “누가 여호와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 그는 모레셋(예루살렘 남서쪽)의 농촌 출신으로, 지방 백성의 눈으로 왕궁과 성전 권력층의 부패를 통렬히 비판합니다.
 - 당시 귀족적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달리, 미가는 민중의 언어와 정서로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

4. 기록 목적

- 부패한 권력자들, 거짓 선지자, 탐욕스런 상류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 그러나 남은 자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동시에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공휼을 함께 선포
-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공의, 인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 (6:8)

5. 단락 구분

미가서는 3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심판과 구원의 대조 구조를 따릅니다:

구분	범위
1-2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 (탐욕, 부패, 거짓 평화)
3-5장	지도층에 대한 심판 + 메시아의 탄생과 평화의 왕국 예언
6-7장	하나님의 송사와 회개 권면 + 남은 자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

6. 중심 메시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 (1) 정의(צֶדֶק, 짜덱), (2) 인애(חֶסֶד, 헤세드), (3) 겸손한 동행 (לֶחֶם עֲנָוִים, 하츠느아 레케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세 기둥입니다.
-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 평강의 통치자입니다(5:2).

7. 신학적 이슈

① 공의와 예배

- 미가는 부패한 제사와 탐욕스런 제물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6:6-7).
- 그는 형식과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실천을 더 중요시합니다. → 오늘날 예배 개혁과 사회 정의를 함께 요청하는 본문

② 메시아 예언

- 미가 5:2 에서 예언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한 직접 예언으로 인용됩니다 (마 2:5-6)
- 메시아의 초림과 종말론적 평화의 왕국을 예언

③ 남은 자 신학

-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키는 ‘남은 자(remnant)’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선언합니다 (4:6-7; 5:7-8)

④ 하나님의 송사 구조

- 미가 6 장은 고대 근동 법정 형식을 빌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언약의 재판’을 벌이시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는 언약 신학의 법적·도덕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미가 해석

① 언약 중심 신학

- 하나님의 송사(미 6 장)는 언약 관계에 근거한 도덕적 책임을 드러냅니다.
- 개혁주의는 언약 안에서의 책임과 특권, 그리고 회개 없는 예배와 신앙의 무가치함을 강조합니다.

② 사회 정의와 신앙 실천의 통합

- 미가서의 공의와 인애는 단지 사회 운동이 아닌,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 이는 종교개혁의 “**믿음 + 삶의 변화**” 강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③ 그리스도 중심 해석

- 미가 5 장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예언합니다.
- 개혁주의는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구속사의 흐름으로 읽습니다.
- 미가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평강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④ 남은 자와 교회의 정체성

- 미가서에 나타난 남은 자(remnant)는 환난 중에도 언약을 지키는 참된 교회의 모델입니다.
- 개혁주의는 보편 교회가 아닌, 참된 신실한 교회(visible & invisible church)를 강조합니다.